

# 'CU 대학생 레시피 경연대회' 전주대 학생 1·2위 수상

### 한식조리·외식산업학과 학생, 지역 조리법·특산물 활용 '상품화 가능성 높아'

최근 CJ제일제당 본사에서 진행된 '2018 CU 대학생 레시피 경연대회'에서 전주대 학생들이 레시피의 창의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1·2위를 차지했다.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특색 레시피를 활용한 편의점 도시락 및 HMR 상품을 주제로 진행된 CU 레시피 경연대회는 특정 지역 특산물이나 조리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간편식 메뉴 개발하고 그 상품화 가능성을 평가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조리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레시피를 선보였다. 특히 전주대 김유진, 박한솔(한식조리학과 4학년)씨가 부산의 낙곱새를 도시락으로 재탄생 시킨 '부산의 맛 낙곱새 도시락'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1등을 차지했다.

전주대 김유진, 박한솔씨는 부산의 별미 낙곱새를 소비자 입맛에 맞게 메뉴를 재구성하고 도시락에 정갈하게 담아냈다. 특히 오래 보관하기 힘든 생부추를 익힌 시금치로 대체하는 등 조리뿐만 아니라 상품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의 유통 전 단계를 고려하여 상품의 완성도를 더했다.

김유진씨와 박한솔씨는 "최근 유행하는 부산의 낙곱새를 전국 어디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맛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라며 "우리가 상품을 기획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1위 수상 전주대 김유진, 박한솔씨



2위 수상 강성혜, 박영민씨

이번 경연대회의 2등 상도 전주대 학생들이 차지했다. 강성혜(외식산업학과 3학년)씨, 박영민(외식산업학과 4학년)씨는 막창 뒷발 요리인 '대구 으뜸 불막창 도시락'을 선보이며 2등에 올랐다.

강씨와 박씨는 조리한 시제품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 끊임없이 설문과 시장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센 불로 비린내를 잡고 불맛을 살린 막창을 밥 위에 얹힌 불막창 뒷발을 탄생시켰다.

1·2위를 수상한 전주대 학생들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두 팀의 레시피는 상품화

과정을 거친 후 전국 씨유 편의점에 유통될 예정이다. 2등 상을 수상한 강씨와 박씨는 "수상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만든 메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40여 개 대학에서 응모한 100여 개의 레시피를 대상으로 상품의 창의성, 대중성, 구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16개의 레시피가 본선에 진출했고 이 중 최종 레시피 시연과 발표를 통해서 3개의 우수 레시피가 선정됐다. /김재훈 기자

## 익산경찰 신학기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 오산파출소(소장 송현섭)가 5일 등교시간(08:10 ~ 08:50)에 익산영민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어계동무 신학기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등교하는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뛰지 않고 천천히 차를 보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며 눈높이 방어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익산경찰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는 경우가 많은데, 교차로에 다다른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핀 후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 횡단하는 '서다-보다-걸다' 방어보행 3가지 안전수칙을 어린이들이 습관화하여 차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경찰-학교-부모가 한마음으로 교육·홍보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순창 쌍치파출소 쌍치어린이집 방문 교통안전교육 실시

순창경찰서 쌍치파출소는 지난 4일 교통 약자인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쌍치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 25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및 각종 교통표지판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을 하고 신호등 보는 법과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그리고 안전띠 착용법 등을 내용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듣는 현장감 넘치는 시청각 교육 및 순찰차 직접 타보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순창=이왕희 기자

## 남원소방서, 청소년 119안전뉴스 UCC 공모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오는 10월 10일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12회 청소년 119안전뉴스 UCC 참가팀을 공개모집 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청소년 119안전뉴스 UCC 경진대회는 전북 소방본부 주관해 열리는 대회로 청소년들이 생활 속 안전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대회이며,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팀당 10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표현 양식에는 제약이 없으며,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요소를 발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사고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7분 이내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참가신청서, UCC 제작일지, 영상파일등과 함께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620-374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정읍 상동지구대, 수확철 맞이 농산물 절도예방 전력 홍보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 상동지구대(대장 이철수)에서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관내 농가를 방문 문안순찰과 함께 특별 방범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위주 집중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동지구대는 관내 농산물 보관창고,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등 도난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소에 대해 특별방범진단 실시, CCTV·도난경보기 등 방범시설을 보강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건조 시에는 마을회관 또는 마을 CCTV 설치장소 이용할 것, 이웃 간 공동 방범체제 구축, 예약순찰제 적극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철수 상동지구대장은 "지구대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하여 한 해 동안 피탐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임실서, 치안고객만족도 향상 위한 실무자 회의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5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민원, 112종합상황실, 지역경찰, 교통사고조사, 지능·강력범죄수사팀 등 각 부서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치안고객만족도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집속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112, 민원 교통, 수사 등 4가지 분야별 업무 처리절차와 응대 태도 등에 대한 만족도를 휴대 폰 알림록(카카오톡 등)으로 설문조사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주민들에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분기 현재까지의 치안고객만족도 결과와 고객의 소리(VOC), 향후 추진 방향을 토대로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임실경찰은 치안고객만족을 위해 분야별 3불(불신, 불편, 불안) 제거를 주제로, △민원 분야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사업 적극추진 △ 112신고처리 분야에서는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더 듣고, 더 설명하기 △ 교통사고조사·수사 분야에서는 조사 전 5분 공감 면담 실시 등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서, 판소리범죄예방 홍보내용 다큐멘터리 촬영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4일 문봉읍 비전마을에서 판소리창법으로 교통사고예방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요령 등을 홍보하고, 문화재청 백두대간 문화유산 다큐멘터리 제작 촬영에도 참여했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청문간사관 조희영 경감의 평소 애용 판소리를 배우며 제작한 교통사고예방 등 홍보영상 내용을 판소리버전으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고, 추수기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보관창고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했으며, 이날 영화배우 류승용과 함께 촬영한 다큐멘터리는 2019년 1월 KBS1 TV에 신년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최홍범 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남원시민들께서 조그마한 범죄피해도 당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